

몬타누니 레오벤 스터디 센터 Montanuni Leoben Study Centre | 프란츠&주 Franz&Sue

위치 오스트리아, 레오벤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6,672m² 연면적 9,927m² 준공 2022 디자인팀 Corinna Toell, Johannes Alge, Lica Anic, Sophie Wiedemann, David Schiefer, Ajdin Vukovic, Suvi Repo, Julia Sonnleitner, Gregor Natter, Johanna Schultze, Lara Baler, Mihail Karakolev 발주자 Bundesimmobiliengesellschaft 사진 Hertha Hurnaus



Q. 몬타누니 레오벤 스터디 센터에 대해 소개해 달라. 어떤 의미를 지닌 프로젝트인가?

오스트리아의 레오벤 대학교는 광신학에 특화되어, 전 세계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역사와 전통을 지닌 학교이다. 새로운 강의실은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도 상징적인 외관을 지닌 건축물로 디자인했다. 언뜻 보기엔 심플한 외관으로, 네 개의 층을 정의하는 유리창과 솔리드의 두 가지 수평 요소가 건축물을 가로지르는 명료한 디자인이다. 하지만 외관의 솔리드 부분은 학교의 특징인 광신학에서 영감을 얻은 지층의 형태를 반영하여 차별화를 줬다. 재료의 두께와 색깔을 조금씩 변형해 그라데이션 효과를 준 것이다. 출입구는 야마당과 무어 강(Mur River) 양방으로 연결되게 계획했다. 내부에는 각각 천 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세 개의 강의실이 있으며 외부의 나무를 바라볼 수 있는 오픈된 공간, 소규모 미팅룸 등을 계획했다. 또한 두 개의 층을 연결하는 복층 공간을 두 군데 계획하여 개방적인 느낌을 주었다. 내부 공간에 반복적으로 사용된 티공 골강판은 흡음 성능이 있어 우수한 음향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하며, 훌륭한 디자인 요소이기도 하다. 이렇게 오랜 전통을 지닌 학교에 현대적이고 개방적인 디자인의 교육 공간을 설계하게 된 것은 뜻깊은 경험이었다.

Q.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설계자로서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는지?

설계 및 시공 기간이 코로나19 시기와 맞물린 탓에 대면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건축물을 설계하면서 실제로 사람과 만나 일하지 못하는 것은 건축가에게는 힘든 과제였다. 건물이 준공되고 난 후, 이 공간에서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이 서로 만나는 광경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